

손병환 “고객 체감 ‘올-디지털 금융’ 위해 스피드업 경영”

〈NH농협금융지주 회장〉

농협금융 DT추진최고협의회 개최
“모든 사업, 고객관점서 보고 판단”
빅테크·핀테크와도 사업 제휴 확대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올-디지털(All-Digital)’을 구현하는 것이 디지털 사업의 목표”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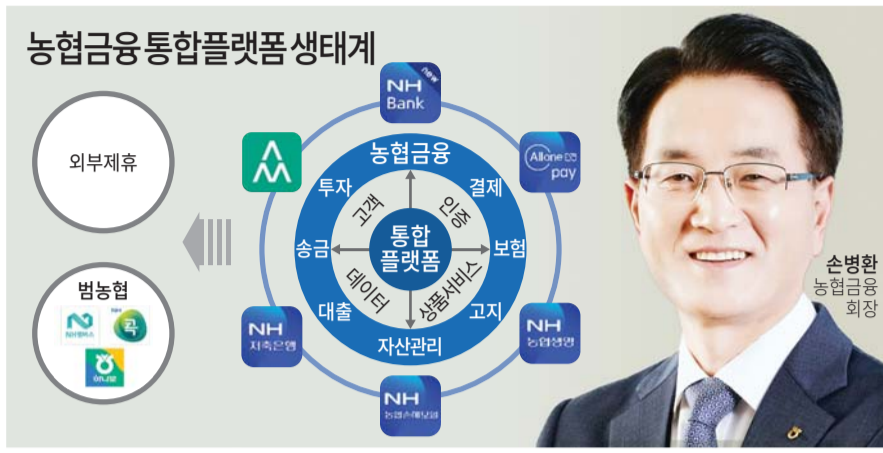
농협금융은 지난 9일 손 회장과 전 계열사 디지털 최고책임자들이 참여하는 농협금융 DT(디지털 전환) 추진최고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연도 중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디지털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실 연후에 앞서 농협금융의 최고 디지털 책임자가 한 자리에 모인 이유는 디지털 지향점을 하루라도 빨리 계열사에 전파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속도감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손 회장의 의지가 반영됐다.

손 회장은 “금융기관도 향후 빅테크와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진단하며 “고객 일상에 금융의 서비스를 녹여낼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야 고객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빅테크들이 고객 불편을 적극적으로 찾아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반면 기존 금융회사는 여전히 서비스 공급자 중심의 사고방식에 갇혀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손 회장의 판단이다.

예를 들면 빅테크, 핀테크는 송금 수



수료나 수취인 계좌확인 불편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간편송금 서비스를 발빠르게 내놓았다. 이에 반해 기존 금융회사들은 CMS결제 수수료에 집착하는 등 영업점 중심의 사고방식에 갇혀 간편 송금 서비스에 대한 대응이 늦어졌다.

◆고객·통합·개방

손 회장은 “농협금융은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올-디지털 구현을 위해 DT 추진속도와 고객의 이용 편의성, 사업 성과를 2배로 높이는 ‘2X 스피드업(Speed-up)’ 경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이 추구하는 농협금융의 디지털 사업은 고객·통합·개방으로 요약된다.

먼저 고객이다. 모든 사업을 철저히 고객관점에서 바라보고 판단할 방침이다. 손 회장은 “고객은 정작 필요하지도 않은 서비스를 단지 우리 만족을 위해 신기술이라고 해서 추진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런 우를 앞으로는 절대 범해서는 안 된다”고 전 계열사에 당부했다.

또 그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할 모든 사업을 철저히 고객 관점에서 바라보고 개선사항을 찾아내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농협금융은 현재 금융회사 관점으로 만들어진 각 계열사 모바일 앱을 고객 관점에서 기본부터 재점검해 금융의 본질과 특성을 반영한 통합플랫폼을 만들 계획이다.

농협 올원뱅크를 계열사 전체를 아우르는 대표 관문(포탈)으로 만들어 고객이 보다 손쉽게 자산을 관리하고, 보험과 결제, 투자 등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내 손안의 금융비서’를 구현한다. 농협만의 차별화된 생활 밀착형 종합플랫폼을 구축해 디지털 금융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내 손안의 금융비서’ 구현

농협금융은 올원뱅크를 중심으로 계

열사 자체 앱도 정비할 계획이다. 은행은 현재 6개의 banking 앱을 개인·기업용 스마트뱅킹 2개만 남기고 통합한다. 나머지 계열사도 농협금융 통합플랫폼과 문제없이 연동될 수 있도록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협금융은 전 계열사가 참여하는 애자일 조직을 신설, 시작 단계부터 계열사 의견을 조율해 나가며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농협금융은 손 회장의 개방형 사상을 반영해 농협의 유통사업 등 내부 조직 뿐만 아니라 외부 빅테크·핀테크와도 사업 제휴를 확대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손 회장은 시장에서 대표적인 개방론자로 꼽힌다. 오픈뱅킹의 시초가 된 금융권 최초의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공개도 손 회장 작품이다. 그만큼 개방과 연결, 협력을 강조한다.

그는 “플랫폼 생태계는 개방과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한다”며 “경쟁보다 상생을 통해 구성원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인재 채용도 성과지표

디지털 전문인력에 대한 채용은 확대한다. 회사에 필요한 인재를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CEO의 관심과 추진력이 필요하다는 게 손 회장의 생각이다.

농협금융은 계열사의 적극적인 인재 채용을 독려하기 위해 자회사 CEO와 디지털부문장 성과평가에 디지털 인재

채용 노력도를 반영할 계획이다.

지주사와 계열사의 역할 분업을 명확히 하는 등 디지털 사업 운영체계도 개선한다.

계열사는 동종업계 최고의 디지털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표 아래 작년에 수립한 DT로드맵 고도화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간다. 지주사는 고객관점 통합플랫폼 추진, 디지털인재 확충 등 그룹 차원의 주요 과제와 함께 계열사를 획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에 충실하기로 했다.

또 이상래 디지털금융부문장(CDO, 농협은행 부행장 겸직)이 주관하는 DT 추진협의회에 디지털마케팅분과를 신설해 마케터 관련 계열사간 협업, 연계마케팅, 외부제휴 등을 금융지주 차원에서 직접 챙기기로 했다.

이 부문장은 지난해 손 회장이 삼성SDS에서 직접 영입한 디지털 전문가로 현재 농협금융 DT추진과 전략수립을 총괄하고 있다.

농협금융 그룹의 DT성과지표도 개편한다. 계열사의 DT추진 성과를 직접 보여줄 수 있는 성과지표 위주로 개편하고, 시장 선도와 비교를 강화해 계열사의 시장경쟁력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손 회장은 “혁신이란 그리 거창하거나 멀리 있지 않다”며 “올원뱅크 송금 메뉴에 계좌복사 기능을 추가한 것처럼 고객을 위한 디테일하고 작은 노력이 쌓여야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우리소다라銀, 인니서 BUKU3 등급 취득

인도네시아 중대형은행 도약 발판
BUKU 등급 상승시 사업 범위 확장
작년 기본자본 4130억... 요건 충족

우리은행은 우리소다라은행이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으로부터 ‘B UBU3’ 등급을 취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B UBU1부터 B UBU4그룹까지 분류하고 있다. 우리소다라은행이 취득한 B UBU3 등급은 기본 자본 5조 루피아(약 3970억원) 이상으로 BUKU 등급이 상승하면 현지에서 영위할 수 있는 사업 범위가 확장된다.

우리소다라은행의 작년 말 기본자본

은 5.2조 루피아(약 4130억원)로 BUKU3 승격 요건을 충족했으며, 최근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으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우리소다라은행은 방카슈랑스 영업 강화 및 증권 수탁서비스를 추가해 사업영역을 한층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우리소다라은행의 BUKU3 등급 취득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디지털 금융 중심의 사업 다각화와 자산 포트폴리오의 질적 성장을 통해 이루어 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고객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석 기자 ysl@



우리소다라은행 본점 전경.

/우리은행

‘제3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5월 개최

금융위, 온·오프라인 방식

‘제3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이 오는 5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최된다.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는 5월 1주차부터 전용 핀테크 위크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참가 신청을 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을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1일차는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행사를 열고 홈페이지,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한다. 이날은 핀테크 투자·채용확대 등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핀테크 기업 IR, 투자자 상담회

를 실시한다.

2·3일 차는 온라인 전용으로 운영한다. 전시관·채용관·교육관·체험관, 각종 세미나·특별세션 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전참가 신청은 5월 1주차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핀테크 기업, 금융사는 사전 참가신청을 해야 하고, 학생 등 일부관객은 무료로 신청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 취업포드 등 일부행사는 사전신청이 필요하다.

온라인 교육관 기관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 및 기업은 한국 핀테크지원센터에 개별신청을 통해 수요증 발급이 가능하다.

/나누리 기자 yu115@

NH농협은행, ‘한국형 RE100’ 참여

재생에너지 사용

NH농협은행은 한국전력의 녹색프리미엄 구입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한 한국형 RE100인 ‘K-RE100’에 참여한다고 14일 밝혔다.

K-RE100은 전기사용량 수준과 무관하게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고자 하는 산업용, 일반용 전기소비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녹색프리미엄 제도는 K-RE100 이행 방법 중 하나다.

K-RE100은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매년 전기사용량의 5%를 재생에너지로 추가 전환해 2040년에 목표를 조기달성 한다는 전략을 수립했다.

재생에너지 사용 조기전환을 위해 NH농협은행은 녹색프리미엄뿐만 아니라

자점 건물의 옥상 및 주차장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 시설을 확충하고, REC 거래 시장에도 직접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NH농협은행은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적인 위기대응에 동참하고자 재생에너지 사용 전환 이외에도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지원 및 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탈석탄금융을 선언했다. 또 업무용 차량의 전기차 전환과 NH 기후행동 캠페인 실시, 전기소비량 감소를 위한 친환경LED 조명교체 등 다양한 전략을 수립해 실천하고 있다.

/안상미 기자

메트라이프생명, 독거어르신 겨울나기 지원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이 독거어르신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은 회사 임직원과 재무설계사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공헌 캠페인 ‘메트라이프 전사 사회공헌활동(MetLife Volunteer Weeks)’을 최근 3주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임직원과 설계사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인 캠페인은 2016년부터 매해 전사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올해 활동은 밀알복지재단과 함께 독거어르신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는 데 뜻을 모았다.

새해 인사와 응원 메시지를 담은 그림엽서를 정성껏 준비하고, 한파에 대비해 온풍기를 전달하는 활동이 전국적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모든 활동은 비대면으로 이뤄졌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